

## 스즈짱 드롭킥! 6-1화 -한국어

얼마나 시간이 지난걸까?

눈은 가려지고 뒷집 지어진 팔은 테이프 같은 것으로 공공 묶여있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신에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는 기미가 없었다. 힘을 회복하기 전까지 잠자코 있었지만 천사의 힘도 막 회복한 참이었다.

‘이런 것 쯤...!’

구속을 벗고 닫혀있던 방을 나서면 그곳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일반 가정집처럼 보였다.

“유메하라 스즈군. 그렇지?”

방을 나선 스즈를 맞이한 초면의 남자. 그 중년 남성은 기름진 피부의 뚱뚱한 체격, 핏이 맞추어진 단정한 차림에서 어딘가의 재력가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 온화한 미소로 스즈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가 이 상황과 무관할리 없었다.

“...당신은?”

“배고프진 않니? 이때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오찬을 준비했단다. 후후, 그렇게 경계할 필요없어. 그도 그렇게 아저씨 스즈군의 빅팬이거든. 그저 스즈군과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란다.”

“...용무가 없으시다면 여기서 나가겠어요.”

남자를 잔뜩 경계해 그 곳에서 벗어나려하지만 중년 남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 스즈를 가로막는다.

“네 소중한 사람에 대한 정보, 알고싶지 않니?”

‘소중한 사람...?’

혹시나 선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걸까? 남자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개운치 않았지만, 벗어나려한다면 언제든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스즈가 남자의 말에 따라 경계하면서 식탁 앞에 앉는다.

“하실 말씀이랑게 어떤...얼른 끝내주세요.”

“스즈군도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아저씨 그녀들을 후원하고 있어.”

그녀들. 분명 헬스플레어에 관한 것이겠지.

“어째서입니까? 그들이 뭘 하려는지 정도는 알고 있을텐데요.”

“스즈군은 빵과 서커스라는 말을 알고 있니?”

모르는 말이었기에 스즈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고대 로마제국은 매달 한달치의 빵과 콜로세움의 관람권으로 300년의 가까운 세월동안 시민들을 지배했었지. 인간들이란 의식주와 적당한 오락거리만 제공해주면 금방 퇴폐문화에 빠져 세상 일따윈 어찌되든 상관없어하거든. 아저씨 이 땅에 현대판 콜로세움을 세울 생각이야.”

“그 때문에 그녀들의 지원을...? 하지만, 사람들이 살인소 같은걸 받아들일리 없어요.”

“후후, 집단암시라고 했던가? 그쪽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 같은게 있어서말이지. 미디어 노출이 용이한 프로레슬링이 선택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냐. 스즈군에게 링의 스타로써 내 콜로세움에 서줬으면 한단다.”

“제가 순순히 협력할거라고...?”

“스즈군은 내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지난 10년 아름다웠던 이 동방의

나라도 썩어빠진 사회의 시스템 때문에 그 빛을 서서히 잃어가려하고 있지. 바꾸려한다면 그럴 힘도 능력도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하나 책임지려하지 않으면서 바른 일을 하려는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그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겠단겁니까. 어려운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주최가 당신이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쉽게는 안 된다는건가? 후후, 네 소중한 사람의 정보가 필요한거겠지?”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몇장의 사진을 건네받으면 거기엔 집단린치를 받은 듯 처참한 모습의 리나가 찍혀있다.

“리나에게 무슨짓을...!”

“어이쿠, 그 건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난 그저 장소만 제공해줬을 뿐, 위치라면 사진의 뒷면에 적혀있어. 소중한 친구겠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리나가 붙잡혀있단걸 안 이상 이런데서 지체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아저씨는 머리 좋은척 하고 계시지만... 그저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을뿐이에요. 절대로 아저씨 뜻대로 될리없어요!”

스즈가 장소를 떠나면 남자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나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나머지는 너희들에게 맡기지. 그런 약속이었으니까. 아아... 반죽음으로 만들어도 좋아... 맘대로 해.”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후후, 그 반대야 스즈군. 너도 결국 날 따르게 될거야.”

....

...

..

주소에 적힌 장소는 인적이 드문 선착장의 창고였다.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리나로 보이는 그림자를 발견한 스즈가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온다.

“리나!”

순간 어두웠던 창고에 불이 들어오더니 바닥에서 철창이 올라와 스즈와 리나 사이를 갈라놓는다.

‘함정...!’

발밑에서 올라온 바닥은 순식간에 링을 형성하여, 조명이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가면을 착용한 열댓명의 관중들이 철창을 둘러싸고 있었다.

“오라앗!”

스즈가 문득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해 뒤를 돌아보면 철창 위에서 블러디오크의 버밀이 매트 위로 뛰어내린다. 그 100kg는 가뿐히 넘을듯한 거체에 매트가 진동하며 스즈가 균형을 잃는다.

“아차...!”

**퍼어억!!**

“우부욱...!!”

스즈의 복부에 제대로 박힌 거대한 주먹. 버밀이 스즈에 배에 박아넣은 주먹을 더더욱 밀어올려 내장을 압박하면 있을 자리를 잃은 위액이 밀려나와 매트 위로 쏟아진다.

“우리들의 링 콜로세움에 온걸 환영한다구 천사짱. 요전엔 잘도 한방 먹여줬었지? 이걸 그 보답이야!”

'클로세움? 여기가 그 남자가 말했던...!'

"카학...!오웨에엠편...!!"

버밀이 주먹을 회수하면 한움큼 위액을 쏟아낸 스즈가 얻어맞은 배를 부여잡고 주춤주춤 물러선다.

"살짝 인사한 것 가지고 벌써 뒤져선 곤란하다고?"

"큭...당신들이 리나를...!"

"아 그래. 자꾸 신경 거슬리는 말만 짝씩 싸벨으니까 이 몸께서 샌드백으로 써주셨지. 5분 정도였나? 꽤 버틴 것 같지만 넌 얼마나 버틸 수 있으려나? 크크, 상태를 보자니 7~8분 선에서 끝나겠군."

"고작 이렇게 당신의 전력인 겁니까?"

제대로 들어간 일격.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지만 그녀들의 비열함에 화가 치밀어오르던 스즈 역시 도발로 응수해 버밀의 험상궂은 얼굴을 더욱 일그러트린다.

"아양?"

"절 쓰러트리려면 이 정도론 어림없어요!"

"흥, 허세부리는 것도 지금뿐이야. 좋아, 특별히 내 비장의 기술로 저세상으로 보내주지. 크크, 이건 5분도 안 걸리겠어."

"버밀...! 갤럭시카...!"

피니쉬무브를 시전하기 위해선지 자세를 잡고 힘을 모으는 버밀. 하지만 스즈는 기다려주지 않고 버밀에게 달려들어 명치에 엘보를 꽂는다.

**퍼억!**

"으굽...! 으구구그으웨엠편...!!"

"미안하지만, 당신을 상대하고 있을 여유따위 없어요!"

"이, 이자식...정의의 히로인 주제에...이런...!"

눈이 충혈되어 고통스러운듯 배를 부여잡고 있던 버밀의 거체가 타액을 질질 흘리면서 매트에 쿵하고 고꾸라진다.

"다음은 누구야? 더 이상 간보지 말고 어서 덤비세요!"

링 바깥에 헬즈플레이어의 레슬러 몇몇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 버밀이 일격에 쓰러져버리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그럴 필요 없어. 널 때려눕히는건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링에 올라온 것은 전에도 본 기억이 있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덩치만 커가지곤 쓸모없는 년...!"

레드윅이 매트에 널부러진 버밀을 링 밖으로 밀어낸다.

"오랜만이잖아, 파이터엔젤. 아니, 진짜 이름은 유메하라 스즈. 귀여운 이름이네."

"당신은 분명..."

"헬즈플레이어의 휘하조직 사이드암즈 대장 레드윅. 후후 잊어버린거야? 난 잊지않았다고? 너한테 패배했던 그 치욕스러웠던 기억. 그 날 이후 난 물론 내 상관인 마리아님의 입지까지 위태로워졌어. 전부 네년 때문에말야!"

"설욕이란겁니까, 하지만 당신 실력으론 절 이길 수 없을텐데요!"

"흥, 매트에 쳐박힌 후에도 그딴 건방진 소릴 지껄일수 있으려나? 저번과는 다르게 여긴 우리들의 홈그라운드라고? 여기 발을 들인 순간부

더 너한테 승산은 없는거야!”

깡!

공이 울리기와 무섭게 달려든 레드웍과 스즈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크웃...!”

“난 말야. 너한테 진 이후로 쪽 이 때를 기다려왔어. 네 그 사랑스런 얼굴을 잘근잘근 짓이겨줄 이 순간을 말야!”